

because I am a Girl



ထိုကတည်းက, ငါ့

SPRING 2016 Vol. 74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6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SPRING 2016 Vol. 74

04 Plan Report

Because I am a Girl - 미래의 원더우먼

08 우리는 플랜가족 1

오영환 후원자

10 지구촌을 간다 1

Every Day Girls Day

14 플랜긴급구호

지카 바이러스

16 우리는 플랜가족 2

후원아동방문기 - 나유경 후원자

18 지구촌을 간다 2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던 시간들

20 지구촌을 간다 3

2년 동안 고마웠어, '아듀 미안매'

22 Campaign

세계 물의 날,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

26 Plan Board

던너뻏! 방글라데시 디나지푸르에서 온 소식

28 우리는 플랜가족 3

조현지 봉사자

30 The좋은선물

32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캄보디아

35 Enjoy Plan

36 Plan News

www.plankorea.or.kr 후원문의 02.790.5436

f facebook.com/plan.kr

t twitter.com/plankorea

talk @플랜코리아

i @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권 제74호 발행일 2016. 3. 22

발행인 노영찬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55.5612



TOMORROW'S #WONDER WOMEN

세계 여성의 날, 미래의 원더우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플랜은 여자아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미래의 리더이자, 선생님, 롤 모델, 영웅입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여자아이가 놀라운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자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 플랜은 재해 복구 시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 및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청소년 리포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리포터 그룹 활동을 통해 뉴스 보도, 사진 에세이, 공공 서비스 안내 등 자기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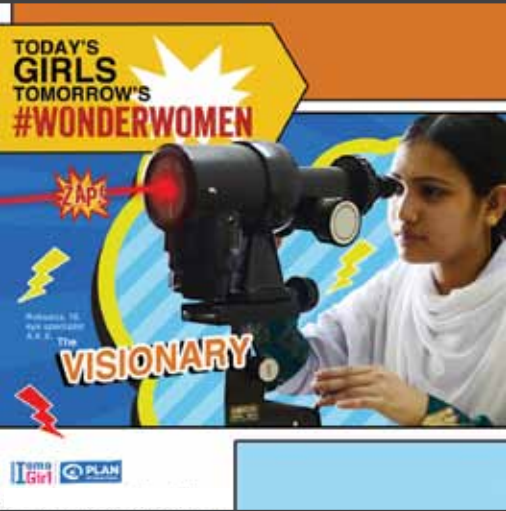
신디는 지난 2년간 배웠던 것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집과 생계수단을 잃어버려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신디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카메라를 잘 다룰 수 있어요. 도전해보지 않는 이상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이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저의 배움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신디

리포터 15세, 필리핀

세계 여성의 날, 미래의 원더우먼



룩사나
안과병원 간호사, 18세, 방글라데시

룩사나가 10학년이었을 때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님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그녀에게 결혼을 종용했습니다. 룩사나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플랜의 걸 파이프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안과 의사 교육과정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안과 의료 기술 과정을 이수하여 안과병원의 수술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룩사나는 가족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방송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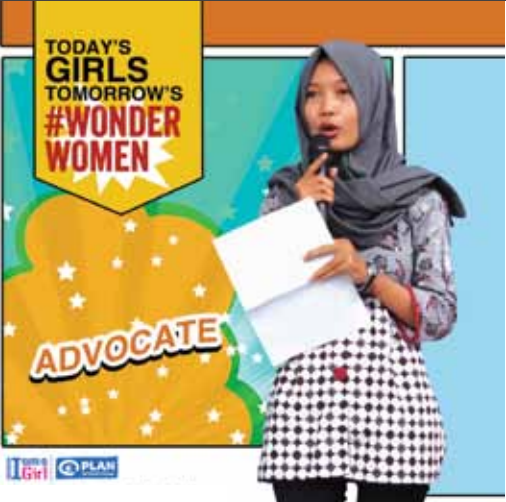
“제가 받은 교육 덕분에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저와 같은 가난한 여자들이 자립을 도와주고 자아실현의 결정적인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헬리아
아동 인권 캠페인 활동가, 14세, 에콰도르

노헬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교사와 교육시설,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며 우리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노헬리아는 전국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어요. 모든 어린이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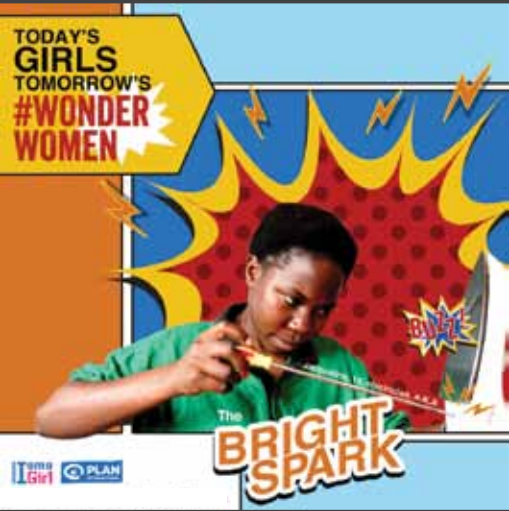


누룰
조혼 반대 캠페인 활동가, 18세, 인도네시아

누룰은 인도네시아 자바 중부에 있는 그로보간의 영웅입니다. 2013년 누룰은 조혼에 관한 조사를 위해 마을에서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의 53명의 소녀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모두 강제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누룰은 지역 어린이 단체의 친구들과 함께 조혼이 여아들과 가족들,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모임과 어린이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공유하였으며 그 결과, 조혼 사례가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누룰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작년에 마을을 떠났지만, 그녀는 새로운 마을에서도 학업과 조혼 반대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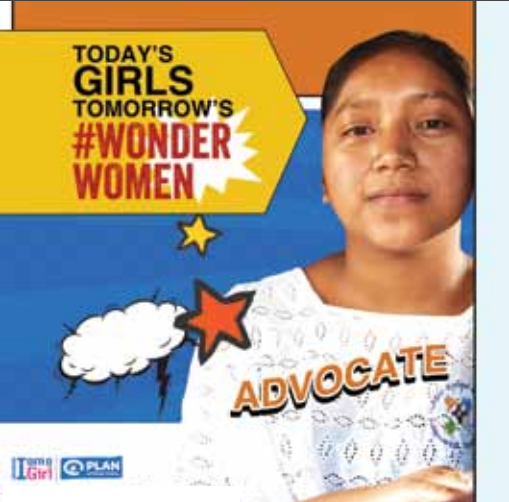


케빈
미래의 미용사, 17세, 베냉

케빈이 14살 때 부모님은 그녀를 다른 마을 남자와 조혼시켰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가 셋이나 있는 9살 많은 남자였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남편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몹시 화를 내며 저를 때렸어요. 이가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기를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와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울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과 아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케빈은 그 후 플랜의 지원으로 미용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 후 미용실을 개업하여 자립한 자신을 꿈꾸며 자신과 아이를 위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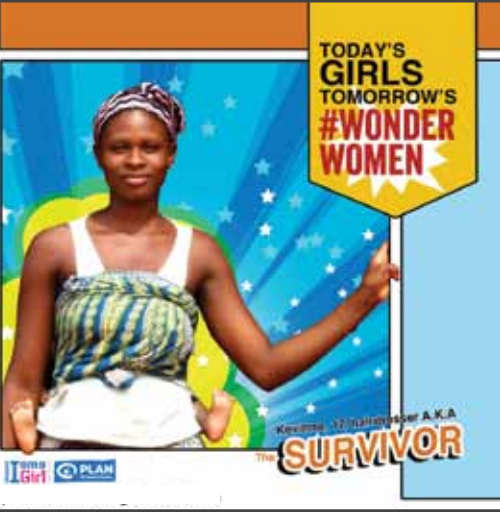
재클린
교육가 및 전기 기사, 19세, 우간다

우간다 캄팔라에 살고 있는 재클린은 11살 때 도시로 이주한 후 강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고모의 친구가 저를 위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어머니에게 추천해서 학교를 그만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술집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가장 어린 소녀는 9살이었습니다.”

재클린은 7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플랜이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성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여아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클린은 성매매업 종사자가 아닌, 프로젝트 교육가로 어린 소녀들을 직접 방문해 성매매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전기 기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이라
여아 권리옹호 활동가, 18세, 과테말라

마이라는 부모님이 마이라의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플랜의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플랜의 장학금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 후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여아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 마이라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담에서 과테말라를 대표해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안젤리나 졸리도 참석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목표,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저를 믿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후원자인터뷰

오영환 후원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는
소방관의 현장 이야기를 담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됐다.
인세의 70%는 순직·부상 소방관과
그 가족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고 한다. 쉽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오영환 후원자를 만나러
성북소방서로 향했다.

후원은 저와의 약속이죠.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이자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을 이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오영환 후원자님,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다른 소방관들이 반장
님이라고 하던데 소방관으로 일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23살 때부터 소방관 일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
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 친구들은 입시 고
민할 때 저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
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위험과 맞서 싸우는 소방관
의 뒷모습을 보고 소방관의 꿈을 키웠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들이 마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부
모 세대는 어려운 일도 많았음에도 희망을 품고 노력해서 사셨잖
아요. 그런 분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걸 지켜주는 사람, 제일 위
험한 순간에 그 희망을 지켜내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소방관이 되
면 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잘 선
택했다고 생각해요.

플랜코리아 아동후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내가 먼저 시작하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저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다른 후원을 2년 정도 하다가 중
단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다시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내 덕분에 함께 하게 됐죠. 아내는 후원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분하고 커플 후원을 하고 계시네요. 아내분이 클라이밍계의
김연아, 암벽 여제 김자인 선수예요.

성북소방서로 오기 전, 산악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때 클라이밍
을 하면서 만났어요.

아, 성북소방서 이전에 산악구조를 하셨었네요. 지금은 어떤 일
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9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오토바이 구급대원이
예요. 좁은 골목길이나 차량정체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곳에 먼
저 가서 1차 응급처치를 해요. 오토바이에 제세동기와 외상 응급
처치 장비가 실려있죠. 위험하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 계시는데, 저희 소방관들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
으로 출동하잖아요. 그 생각에 집중하느라 위험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저희의 임무이자 직업이니까요.

정말 멋지세요. 소방관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
으신지요?

의무소방관으로 처음 구급차를 탔을 때 보았던 사고를 당한 어린
아이가 마음에 깊이 남아요. 영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 차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린이들 사고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아직 뭘 해보지 못한, 꿈을 꾀보지도 못한 아이들인데, 아
직 스스로 자기를 지킬만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런 후원자님의 마음이 아동 후원에 이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들어요.

네,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했어요. 책 인세의 70%를
순직·부상 소방관과 그 가족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에
게 후원하려고 해요. 그것과는 별도로 해외 아동후원을 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모든 어린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3만원이 그 나라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시
작하기 전에는 여유가 없는 것 같지만, 시작하고 나면 막상 큰돈
은 아니예요. 작은 후원금이지만 후원아동에게는 그 가치가 크잖
아요.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의미
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후원아동이 생각나고 그러시나요?

후원아동 사진을 받으면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죠. 부르
키나파소와 토고에 한 명씩 후원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뉴스를 볼
때면 문득 생각이 나요. 안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후원아동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개발도상국에 사는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부
분도 많을 텐데, 그래도 플랜코리아처럼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산이라고 해야 할
까요. 우산이 되어 변함없이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가 우산 아래 있
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변화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건강하게 컸
으면 좋겠어요.

오영환 후원자님에게 후원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후원은 저와의 약속이죠.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이자 꼭 지켜야 하
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후원을 이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Every Day Girls Day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를 반긴 것은 뜻밖의 선선한 날씨였다.
우리를 반긴 뜻밖의 날씨처럼, 이번에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을 안고서, 플렌코리아 홍보대사 걸스데이 소진, 유라와 함께 씨앰립을 찾았다.

걸스데이 멤버들은 2013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두 번의 태국 방문을 통해 조혼으로 고통받는 여자아이들,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여자아이들을 만났다. 조혼으로 고통받고 출생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가난한 나라에서 여자아이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 이번에는 캄보디아 씨앰립을 찾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비한 씨앰립 시내에서 불과 20분 거리,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 멀리,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어린 소녀 소벤이 보였다. 올해 열네 살인 소벤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전선, 구리와 같은 금속류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돈이 되는 물건들을 줍기 위한 경쟁은 언제나 치열하다. 쓰레기가 범벅인 소벤의 손은 손가락이 두 개씩 붙어있다. 한쪽 손과 발이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했다. 더욱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손이 쓰레기에 범벅되어 있다니, 떨정한 내 두 손이 부끄러워진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많은 여자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

가족 생계의 책임이
왜 이 작은 여자아이들의 어깨에 지워져야 하는지,
코를 찌르는 쓰레기장의 악취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우리가 목격한 아이들의 삶이었다.



글: 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김혜현 / 사진: 포토그래퍼 고운



동생들과 가족을 소개해 주겠다는 소벤을 따라 마을로 이동했다. 소벤은 네 자매 중 셋째 딸, 큰언니의 진학을 위해 둘째 언니도 관광지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네 자매 꿈은 모두 선생님이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소벤의 눈이 반짝인다. 미리 준비한 영어사전과 노트를 펼쳐 보이니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작은 손으로 매일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소벤의 꿈은 매일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소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꼭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쁜 핑크색 자전거를 선물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꿈을 들려주며 반짝이던 눈빛과 밝은 표정에 웬지 모르게 안심이 된다.



다음날 우리는 씨엠립의 한 중등학교를 찾았다. 모래 바람을 가르며 한참을 달리자, 멀리서 맨발로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손을 흔들자 함박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를 반기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실로폰과 멜로디언, 리듬악기를 가지고 음악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이 어색해하여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한번도 음악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에코백에 꿈을 그려보는 미술 교실도 진행했다. 개성 넘치는 그림처럼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꼭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모든 여자아이에게 교육의 혜택이 동등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유라가 여자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날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유라 뒤로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다. 한쪽에서는 소진이 비눗방울과 풍선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드디어 완성된 벽화 앞에서 모두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명씩 즉석 사진을 찍어주며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이곳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늘 오늘처럼 행복하길,
우리가 벽화에 남긴 메시지처럼,
여자아이들이 하루하루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Every Day, Girls Day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

중남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생아 소두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전 세계 37개 국가(16년 3월 1일 기준)와 지역으로 퍼진 지카 바이러스는 완전 치유가 가능한 백신과 예방책이 부재한 상태로,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에게 접종 가능한 수준의 의약품 개발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타국의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질병에 관련한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된다.

“지카 바이러스는 분명하고 실재적인 위협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싸우는 것은 촉각을 다루는 일입니다. 신속하게 대응 활동을 시작하여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플랜의 재난대비 및 대응 본부장 윤니 크리슈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인식 증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예방이 가능하다면 지카 바이러스 확산속도는 효과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땡기열과 치쿤구니야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는 한,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각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남미와 캐리비안 해역을 거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멈추기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 플랜 남미 및 카리브 지역 재난 대응 매니저 라울 로드리게즈 초토

소두증의 위협,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의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소두증 사례는 2015년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중남미 지역에서 태어난 수많은 신생아의 소두증 사례가 전례 없이 증가하여 지카 바이러스와 상관성이 강하게 의심되었다. 이에 대중의 공포와 우려가 급증하여, 소두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큰 임신부에게 한시적 낙태를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소두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성장이 불가능하거나, 평생 타인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 국가 저개발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세계 영유아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플랜의 대응

모기로 감염되는 땡기열과 치쿤구니야와 같은 다른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는 플랜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 수준의 대응팀을 운영하며 세계 공동대응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모기 유충의 주 서식지인 고인 물 제거, 위생적인 식수통 배급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 지역 내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땡기열과 치쿤구니야 모기 유충을 먹이로 삼는 물고기를 방생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긴급구호 후원하기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긴급재해지원

후원아동방문기 내가 함께 걸어갈게!

— 나유경 후원자 —

늘 드는 생각이지만, 플랜코리아와의 만남은 제게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랜클럽과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플랜코리아에서 저는
또 하나의 가족까지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항상 설렘의 연속이었던 플랜과의 만남.
그중에서도 제 후원아동인 유스라와의 만남 이야기를 살짝 풀어보고자 합니다.



플랜코리아를 알게 됨과 동시에 언젠가 저도 한 아동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탄자니아로의 유학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공부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행이 결정되자마자 플랜코리아에 아동후원신청을 했고, 그렇게 유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플랜코리아를 통해 플랜탄자니아와 탄자니아 내 사업장인 플랜 다르에스살람 사무소에 연락한 후 저는 유스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스라의 집은 제가 유학생활동을 하는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스라가 살아가는 공간은 제가 생활했던 학교 인근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방 한 칸과 좁은 문으로 이어진 부엌,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유스라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유스라의 아버지, 나이가 되었어도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던 유스라...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 제 눈 앞에서 현실이 된 것을 본 후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야 할까?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했을까?
이 아이가 행복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지?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빈부 격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경제적, 행정적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평화의 항구라는 의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약 2.6배 넓어입니다. 특히 제가 지냈던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인근은 다르에스살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치안도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캠퍼스 밖으로 나가 만난 세상은 정말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로와 길은 물론, 동네 전체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학교에서 후원 사업 지역까지의 거리는 차로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많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도시가 바



로 이곳 다르에스살람인데, 이러한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탄자니아 내 심화된 빈부 격차의 단면을 보는 것과도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와중에 제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유스라의 눈망울 앞에서 저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예뻐기 때문입니다. 유스라는 처음 저와 플랜 직원들을 만났을 때 아주 많이 낮설어했습니다. 대부분의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렇듯, 유스라 또한 백인(이곳에서는 흑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MZUNGU(백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곳 사람들이 유색인과 백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합쳐 백인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인 저를 낯설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이름을 불러보고 열심히 바라봐도 대답을 하지 않던 아이를 위해 저는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으로 자라나라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학용품들을 많이 준비해갔는데, 유스라도 선물이 마음에 들었던지 제게 그제야 한 번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유스라의 꿈은 의사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픈 곳을 고쳐주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아이의 꿈은 그 누구의 것

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꾸는 커다란 꿈, 저는 유스라에게 그 꿈을 지켜주는 ‘라피키(RAFIKI, ‘친구’라는 뜻의 스와힐리어. 탄자니아에서는 스와힐리어가 공식 언어로 통용됩니다.)’가 되려 합니다. 유스라를 만났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너와 함께 네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잘 성장할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유스라가 꿈을 이루는 날, 저는 그녀에게 가서 진료를 받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누는 아주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 될 수 있고,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던 후원아동 방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방문에 도움을 주신 플랜코리아와, 친구처럼 저를 편안하고 친절하게 맞아준 플랜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사무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플랜과의 인연이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아닌 당신을 위했던 시간들

해피무브와 함께한 11박 12일의 여정.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을까?

답은 각자의 목적과 의미,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 바탕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새로운 시작의 앞에서, '우리 함께'

하노이에서의 아침은 우렁찬 단가와 함께 시작됐다. 처음 경험하는 낯선 환경과 분위기에 겁도 났지만, 해피무버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고 있었다.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들도 많았다. 그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우리의 행동, 몸짓,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하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모든 건 서로가 있어 가능했다. 건축봉사 내내 나누어 먹던 물 한 모금, 문화교류를 준비하며 웃고름을 매어주고 매무새를 정리해 주던 그 모든 시간들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하여 보낸 11박의 여정은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가슴 벅찼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베트남 대학생 통역사분들, 서투른 우리에게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주셨던 작업반장님들과 매일 만나고 함께 일하며 할 수 있는 거라곤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뿐이었지만, 돌아오는 미소와 반응은 그 어떤 것보다 감동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 마음을 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른 문화와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문화교류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욱 감사했다.

현대 · 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완공식에 가다

2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플랜코리아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함께 건설한 '현대 · 코이카 드림센터'의 완공식이 열렸다. 드림센터는 베트남의 청소년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일자리 연계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민관협력사업 프로그램이다. 이 날 완공식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베트남 코이카 사무소, 건설공업대학 총장, 하노이 공업전문대학 총장, 현대건설 및 현대자동차 임직원을 비롯해 플랜베트남, 플랜코리아 임직원이 참여하여 완공을 축하했으며, 특히 기업과 NGO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CSR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완공식에서는 현지 문화공연과 더불어 102명의 봉사단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의미있는 공연을 펼쳤다. KPOP 공연과 태권무, 음악줄넘기, 아카펠라, 그리고 풍물 등 밤낮으로 연습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영원히 반짝일 별들에게 우리의 향기를 전하다

해피무브 단원들이 함께한 건축봉사는 유치원의 부족한 교실과 화장실을 짓는 일이었다. 시멘트를 만들고, 벽돌을 옮기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해피무버들은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봉사 중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작은 행동에도 행복해하며, 수줍게 인사를 전하던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순수함과 반짝임을 보았다. 건축봉사를 하면서 교육봉사, 문화교류 공연 준비까지 해피무버들은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고 연습하며 수많은 밤들을 우리들만의 향기로 채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베트남 현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전해주었다. 함께 노력했던 우리의 향기가 그들에게 남아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파견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의 소중한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배워갈 것이다. 우리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다. 이제 서로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지만, 해피무브를 통해 경험한 수많은 감정과 마음가짐들은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함께했던 베트남에서의 추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글: 플랜코리아 해피무브 인턴 정지인
사진: 해피무브 16기 베트남 지역 홍보단



2년 동안 고마웠어, ‘아듀 미얀마!’

미얀마에 첫 발을 떼어놓았던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의 파견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회색 도시 서울에서 황금의 나라 미얀마를 추억하러니, 마치 꿈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도 내겐 꿈같이 비현실적인 시간이었다.

하지만 미얀마는 내 삶에 경험 이상의 소중한 변화와 의미를 부여해준, 나를 성장시켜 준 곳이다.

2014년 3월, 현대제철에서 지원하는 만달레이 주 식수 사업을 기반으로 한 파웅비라이 지역 개발 3개년 사업 지원을 위해 코이카와 국제개발민간협의회(KCOC)의 지원을 받아 플랜미얀마에 사업 관리자로 파견되었다. 사업지가 위치한 만달레이 주는 미얀마 중북부로 드라이 존(DRY ZONE)으로 불린다.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어 황폐해진 이곳은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곳으로 현재 심각한 식수와 위생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만달레이 주는 미얀마의 오랜 군사 독재의 악영향으로 각종 인프라 부족과 교육 혜택 미비로 인해 미얀마 전체 빈곤율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다.

미얀마 파견 후 현지적응과 행정적 업무들로 정신없이 한 달여를 흘려보내고, 5월 무렵이 되어서야 사업지에 첫 방문을 할 수 있었다. 미얀마의 4~5월은 혹서기로 46~7도를 오르내리는 불가마 더위를 자랑한다. 그나마 강이 가까운 양곤이나 산간지역은 물로 씻으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는데, 물이 없고 사막화된 드라이 존은 나무 그늘로 대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마실 물도 부족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았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어서, 나의 첫 방문에 플랜 직원들은 본격적인 주민조직을 막 시작하던 참이었다. 당시 주민조직 참여 후 짧게 적은 일기에 그 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플랜 직원들, 그리고 이방인인 나를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우리에게 대한 신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의 많은 우려에도 우리는 계획대로 차분히 해나갔다. 사업 대상마을 중심점에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설부터, 마을/학교 단위 식수, 위생시설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활동을 하는 한편,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농업, 가축, 재단, 운전, 위생 등의 다양한 교육과 신용조합 조직, 새마을운동위원회 등의 소프트웨어 활동을 2년간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의 작은 디테일을 수정해나가며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나갔다.

이 사업을 시작부터 지켜보며 6개 마을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했기 때문에 사업 스태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겪어온 우여곡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식수시설 설치 중 한 마을은 지반이 너무 단단하여 3차까지 시추를 할 수밖에 없어 사업팀과 마을주민들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한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의 지원으로 식수와 위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2차년까지 6개 마을 중 5개 마을이 식수시설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었다. 생계지원 방안으로 지원한 신용조합 및 각종 교육으로 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 방안이 늘어나면서, 생계활동에 내몰렸던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었던 가족의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주민들의 눈빛과 태도이다. 파견 종료 약 2주 전 마지막 방문에서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았다. 특히, 주민들이 플랜 직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

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아래 오랜 시간 억눌려 매 우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은 각종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리더십프로그램과 새마을운동위원회 활동, 신용조합 등의 효과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방문의 마지막 날, 3개월간 진행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재단교육의 수료식이 있었다. 수료식에서 현지 매니저의 권유로 주민분들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오늘이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모이신 주민분들께서 슬프게 우시며 서운함을 표시하셔서 결국 나도 눈물이 나왔다. 나를 이방인처럼 바라보던 주민분들이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면 좋겠다고 하시니 감회가 새로운 한 편, 학업을 위해 사업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가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2015년에 있었던 미얀마의 총선으로 민주정권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미얀마의 미래는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동남아시아에서 소문난 근면성은 미얀마의 발전에 많은 힘이 될 것이다. 플랜이 미얀마에 사무실을 오픈 한지 불과 4~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업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 가능성 많은 나라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아웅산 수치의 나라이자, 나의 제 2고향이 된 미얀마의 국민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간절히 소원해본다.

글/사진: KCOC 미얀마 봉사단원 장은영



세계 물의 날
보장되어야 할 권리: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

World Water Day 2016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1993년 제 1회 세계 물의 날이 선포된 이후, 플랜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은 모든 사회적 순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보다 건강한 의식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여, 더 나은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고도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2015년 플랜의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



2015년 한 해 동안, 플랜은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배변 환경의 중요성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내 배변이 가능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69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까지, 1,644,750명의 사람들이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6,609,570명의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플랜의 활동

플랜은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등 식수 및 위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구호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플랜의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등의 일차원적인 활동을 넘어, 지역 리더들과 단체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합니다.

플랜영국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남아시아 손씻기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역 아동들과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비누로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워터에이드(WaterAid), 유니레버(Unilever), 도시 빈곤층을 위한 식수 및 위생(WSU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와 물(IPSOS MORI and the Water), 영국 기술 및 개발 센터(WED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각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식수 기금을 조성하고, 위생 시설을 개·보수하며, 위생 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주도 종합위생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지역 내 식수 및 위생 인식 증진과 관련 시설 건축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1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플랜은 19만 5천개의 화장실과 17만개의 샤워 시설을 확충하여 각 지역 내 설사 발병률을 평균 35% 가량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다양한 위생 개선 방안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위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랜은 스리랑카에서 ‘월경 인식 개선’이 단순히 여자아이들의 건강 문제 영역을 넘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 요인임을 지적하여, 종합 위생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월경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위생용품을 사용 후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과 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여자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나는 대학원생이자 프로젝트 활동가입니다. 그녀는 파키스탄의 우메르콧 지역 내에서 야외 배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화장실을 짓고, 비누로 손을 씻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2016년 플랜코리아와 함께하는 캄보디아 식수 지원 사업

캄보디아는 수자원 자체에 비소 성분이 높아 정화 필터가 설치된 식수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를 개선할 자금이 없어서 수인성 질병에 쉽게 걸리고, 아이들이 먼 거리까지 물을 길러 가는 과정에서 사고와 성폭력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플랜코리아의 식수 지원 사업에 동참해주세요!

400만원
후원금액

후원기간: ~2017년 3월까지

식수 사업을 지원해주시면
후원자님의 이름이 들어간 현판이 설치됩니다.

문의: 02-545-0658 / kno@plankorea.or.kr



“위생 프로젝트가 시행된 후,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비누로 손을 씻게 됐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 사나, 파키스탄, 프로젝트 활동가



“세계의 많은 여자아이들이 여전히 위생적인 월경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비위생적인 면보 혹은 나뭇잎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생적인 용품, 깨끗한 물,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 플랜미국 식수 및 위생 담당 다렌 세이웰



던너뵓! 방글라데시 디나지푸르에서 온 소식 고마워요 후원자님!

방글라데시의 디나지푸르(Dinajpur) 지역이 발전을 거듭하여 플랜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자립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플랜은 마을을 떠납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플랜은 지난 21년간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보건, 위생, 아동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플랜은 디나지푸르에서 단계적으로 후원 사업을 중단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후원자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디나지푸르는 방글라데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제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 중 하나로, 약 2,747,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플랜은 1994년에 처음 이곳에 플랜 사무소를 설립하고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디나지푸르 지역 사무소의 후원 아동 수는 1,15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디나지푸르 13개의 지역구 중 2개 구역인 칸사마(Khanshama)와 치리반다르(Chiribandar)에서만 12,237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활동으로 아동들의 삶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 보건위생 프로그램

플랜은 지역 내 54개의 보건소를 지원하고, 보건 관리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내 출산은 84%로, 모유 수유 비율은 86%까지 증가했으며, 산모 사망률이 10만 명 당 93명(전국 평균 194명), 영유아 사망률은 1천 명 당 21명(전국 평균 5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위생적인 화장실 사용률은 2003년 21%에 비해 98%까지 증가했습니다.

▶ 아동보호 프로그램

플랜은 여성 및 여아 권리 세미나를 실시하여 조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214개의 조혼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 중 58개의 사례가 어린이 보호 단체를 통해 방지되었습니다. 또한 여자아이들의 평균 혼인 연령은 1994년 12세에서 현재 17.62세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플랜은 온라인 출생등록을 지원하여 3,203,481명 영아들의 출생을 등록하여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초등교육 프로그램

플랜은 어린이 개발 센터의 4,032명의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행하여, 1,216명의 유치원 교사들의 교사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비율은 1998년 0%에서 2014년 97%까지 증가했습니다. 플랜은 28개의 초등학교를 건립하였고, 초등학교 입학률은 2013년 60%에서 2015년 99.98%로, 졸업률은 33%에서 99%로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위험관리 프로그램

플랜은 125개의 초등학교에서 재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85개의 초등학교에서 재난 대응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00명의 학생들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후원아동 케아의 이야기

17살 케아는 자신감이 넘치는 소녀입니다. 플랜의 어린이 모임을 통해 가라테를 배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케아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곳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해요. 플랜은 그러한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18세가 되기도 전에 결혼시키려 하셨지만, 플랜의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을 거두 막을 수 있었어요.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 무수미, 디나지푸르의 플랜 후원아동

세계의 모든 아동이 행복해지기를

— 조현지 봉사자 —

나는 지난 2014년부터 플랜코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아동의 권리와 그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나는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플랜코리아의 모토를 알게 된 뒤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얼마 후 담당자분으로부터 아동자로 번역봉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영어에 크게 자신 있는 편도 아니고, 번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설명을 듣고 직접 번역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익숙해지고 난 후,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아동들의 삶의 일부분을 번역해오면서 본 것 중 인상 깊었던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동들의 어린 부모였다. 수혜국 아동들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지원국 사람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나이가 어렸었는데, 그중에는 이제 겨우 스무 살을 넘긴 내 또래들도 꽤 있었다. 그 어린 사람들을 지켜보며 연약한 몸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갔을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특히 어린 어머니의 경우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을 확률이 높고, 이는 또 다른 조혼과 인권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인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속될지도 모를 악순환을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동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곳이 물을 길는데 기본적으로 5분 이상이 걸렸다. 심한 지역은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였다. 번역봉사를 하기 전에도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러한 문제가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식수 문제는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상당수의 가족들은 식수를 수도시설을 통해 정수된 물이 아닌 정수되지 않은 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깨끗하지 않지만 살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 더러운 물을 길어왔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식수와 관련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위생 시설과 관련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간혹 위생 시설 없이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었는데, 식수와 마찬가지로 위생 시설은 아동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개인위생이 악화되어 위험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식수에 비해 화장실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었지만,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위생 관련 후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2년간 번역봉사를 해오면서 현재 플랜코리아를 포함한 여러 기구의 지원을 받는 후원국 아동들의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막연히 가난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거주지, 건강상태, 가족, 식수 및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실태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 자세한 자료들이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한 단순히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어떠한 측면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그 아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동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

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성인이 되면 해외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더 가까이서 아동들을 돕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려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니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 같아 행복하다.
좋은 기회를 주신 플랜코리아에 감사드리고,
세계의 모든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

Give a gift of hope

The좋은선물!

The좋은선물이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정에 맞는
물품이나 프로젝트를 후원자님이 직접 선택하여
현지에 선물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후원입니다.

미얀마 유치원 건립 선물 전달

0-5세 사이, 아동의 초기발달과정은 아동의 삶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보살핌과 교육, 충분한 영양섭취 등의 부족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얀마 아동의 7%만이 미취학 교육기관(유치원)에 등록되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 전 교육의 부재는 충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플랜코리아는 The좋은선물을 통하여 마을 내 유치원을 건립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과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내에서도 아동에게 적절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니 아이의 신체적, 지능적 발달 외에도 전인격적인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고,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미얀마 라카인(Rakhine) 주, 영유아 교육 모임 참가자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더욱 커지는 행복!

가족, 친구들과의 생일, 결혼 등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The좋은선물'을 선물해주세요!



선물 1 직업기술교육



선물 2 초등학교 건립



선물 3 유치원건립



선물 4 깨끗한 식수



선물 5 화장실



선물 6 우물펌프



선물 7 모기장



선물 8 에이즈 예방 키트



선물 9 기술교육 기자재



선물 10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선물 11 Count Every Child 캠페인

후원방법

02-790-5436

<http://app.plankorea.or.kr/gift2013/>



선물 선택



선물 후원



E-card 발송



선물 전달!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캄보디아
Cambodia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

수도: 프놈펜 (Phnom Penh)

언어: 크메르어

인구: 약 15,458,332명 (2014년 기준)

평균 수명: 59.7세 (2014년 기준)

문맹률: 73.90 (2015년 기준)

GDP (1인당 기준): 1,146\$ /세계154위(2015 IMF 기준)

인간개발지수(HDI) 국가 순위: 143위 (2015년 기준)

빈곤층 가구의 비율: 31.5%(2010년 장기계획사업지표 기준)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의 캄보디아 평원에 위치하고 메콩 강이 국토의 중앙을 관류하는 평원국가입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몬순기후로, 10월 중순~5월 초의 건기와 5월 중순~10월 초의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캄보디아는 일반적으로 밀림과 관목, 초원이 혼합하는 사바나의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장년층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어 교육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내전으로 인한 대량학살 등으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장년층을 찾아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교육은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학제는 6-3-3제(대학교 3-5년)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한 학교시설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랜, 캄보디아에서는?

플랜은 2002년부터 총 4곳의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랜캄보디아를 통해 현재 580개 지역 사회의 60만 명의 어린이들과 8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플랜캄보디아는 출생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정부와 함께 진행하여, 전체 지역 주민의 5%에 불과했던 출생등록자의 비율이 92%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 및 식수와 위생 안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게 소액 대출을 통한 창업으로 가게 수입 창출을 장려하고 개량농법 등을 제공하여 자녀의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마을 내에 유치원 건립을 지원하고,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에게 아동 친화적 교육방식에 대한 아동 인권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건강 관리, 식수와 위생 교육의 개선,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설립으로 많은 학생들이 중등 교육을 받게 되었고,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캄보디아는 청소년들의 성 건강과 모자보건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 조직 및 지역 정부의 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랜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액 대출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OK캐쉬백 후원, 이렇게 쉽습니다!

이제, OK캐쉬백 앱에서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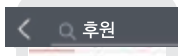


OK캐쉬백 후원, 이렇게 쉽습니다!



1

OK캐쉬백 앱을 여세요
(OK캐쉬백 앱은 Play 스토어, T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OK캐쉬백 앱 검색창에
'후원' 또는 '플랜코리아'를
검색하세요



3

플랜코리아 후원 페이지에서
OK캐쉬백 포인트 입력하고
후원하기 버튼만 터치하면 끝!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 그림찾기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참여방법 1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or

참여방법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6년
여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지난 호 정답▶

겨울호 이벤트 당첨자
김정은, 박수현, 이신경, 이찬주, 유하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플랜코리아 소식

삼성물산, 인도 식수환경 개선사업 준공식

플랜코리아와 삼성물산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하여 인도 델리의 도시빈민가 지역에서 추진해온 식수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식수타워 준공식을 가졌다. 본 사업은 대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수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펌프, 식수정화시설, 급수저장용 탱크 설치 등 음용수 정화 및 저장 시설을 지원하였다. 플랜코리아와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지난해부터 델리 지역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수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 중 6개 학교에서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9개 학교에서도 2차년도 식수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HSBC코리아 여성위원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후원금 전달

HSBC코리아 여성위원회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인도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후원금을 플랜코리아에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인도 델리 주 마단뿌르카다르 지역의 슬럼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학교는 저지대에 위치해 우기에는 운동장 및 주변이 침수될 뿐만 아니라 학생 수 대비 위생 시설의 수가 부족하고 열악한 식수시설 및 배수시설로 인해 수인성 질병이 만연한 곳이다. 이에 남부구 구분된 화장실 신축 및 빗물 저장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아동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HSBC코리아 여성위원회는 5년째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개도국 여자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삼성물산과 태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센터 준공식

플랜코리아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태국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센터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태국 촌부리 주 반부엡 지역에 위치한 이 센터는 2003년 건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 장비 및 기자재 부족, 교사 수 감소 등 교육환경이 점차 열악해졌다. 이에 플랜코리아와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부터 건물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삼성물산 태국 법인 및 삼성전자 태국 법인과 협력하여 삼성전자 휴대용 생산법인 견학, 에어컨 생산 및 수리 과정에 대한 교육 진행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용접, 목공, 가전수리, 차량정비 등 수업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기자재 및 장비 지원, 교사 확충, 인턴십 참여 기회 등이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동아ST, 서아프리카 기니에 의약품 전달

전문약품 전문기업 동아ST와 '서아프리카 기니 소외 지역 의료지원'을 위한 의약품전달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동아ST는 상처치료제 도다나겔 8,000개를 지원한다. 의약품이 공급될 지역은 서아프리카 기니 남부 은제레코레 주 베일라 현 베일라 지역 등 9개 지역으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로 고통받은 곳이다. 이 약품들은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중앙병원과 117개 지역보건소를 비롯해 2,382개의 지역보건활동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동아ST 해외사업부 이종빈 전무는 "해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추후 다른 아프리카 소외지역을 위한 의약품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백진희 홍보대사,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대상 나눔강연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탤런트 백진희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나눔강연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캠퍼스에서 진행된 나눔강연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플랜코리아가 함께한 토고 초등학교 지원사업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활발한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백진희 홍보대사는 임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플랜코리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현지 아이들의 삶과 개도국이 처한 안타까운 환경과 현실에 대해 전하고, 임직원들에게 아동결연 후원을 신청을 직접 받기도 했다. 한편 백진희 홍보대사는 3월 캄보디아로 네 번째 봉사활동을 떠날 예정이다.



소셜서비스 봉봉과 SNS 캠페인 진행

전 세계 50개국에서 한 달에 2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소셜콘텐츠서비스 '봉봉'과 나눔을 전하는 SNS캠페인을 진행한다. 봉봉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프로필 사진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착안해, 플랜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Because I am a Girl', 출생등록 캠페인 'Count Every Child' 등 캠페인 관련 이미지를 SNS의 개인 프로필에 적용하고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플랜코리아에 기부했다. 플랜코리아의 걸스데이, 송재림, 문가영, 허민 홍보대사가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이미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SNS상에서 플랜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유하며 나눔을 전하고 있다.



1억 4천만 여성들의 고통, 철폐되어야 할 악습 할례

말리에서 '제거(Excision)'라고도 불리는 '할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녀들에 대한 극악한 폭력 행위이자 권리를 침해하는 악습이다. 할례는 왜곡된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비논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전통 관습으로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 플랜과 지역 협력 기관과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플랜의 구호개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말리의 69개 마을에서 할례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는 성명이 발표됐으며, 추가적으로 3개의 마을에서 곧 할례 금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지도자들은 할례 악습 철폐의 가장 큰 조력자이다. 그 외에도 플랜은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부르키나파소 등 할례가 자행되고 있는 30여 개 국가에서 강력한 '할례철폐' 운동을 펼치고 있다.



플랜지구촌 소식

세계 라디오의 날, 소통의 창구로서의 라디오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 세계 곳곳에서는 라디오의 중요성과 업적에 대해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라디오는 인프라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외부소식과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창구이다. 세네갈 언론인 바바카는 어린 시절 플랜세네갈의 후원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바바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아동 참여와 성평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바바카는 이내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현재 그는 3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대표적인 세네갈 청소년들의 소통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토고의 외딴 마을까지 뇌수막염 백신 제공

토고에 뇌수막염 발병률이 높아지자 플랜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토고에서 발병한 뇌수막염은 현재까지 666건이 보고되었으며, 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2월 24일 기준) 뇌수막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의미하고, 척수로 연결되어 뇌척수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 두통, 오한 등이 뇌수막염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뇌수막염에 걸린 후 회복한 환자들은 뇌 손상과 학습 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앓을 수 있다. 플랜토고는 5천 개의 백신을 제공하고 외딴 지역까지 백신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고 정부와 협력하여 뇌수막염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뇌수막염 백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이다.



황폐화된 에티오피아, 엘니뇨의 공격

작년부터 시작된 슈퍼엘니뇨가 불러온 큰 가뭄에 에티오피아가 황폐해지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더위로 인해 거의 모든 작물이 고사하여 영양실조와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역들을 '최우선 긴급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인명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플랜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 식량 및 식수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플랜의 구호활동으로 한 달 식량 15kg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받은 38살 케디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플랜은 우리 가족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20kg의 강낭콩 씨앗을 배급받아,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짐바브웨에서 조혼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

짐바브웨에서 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통과돼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6세였지만, 2016년 1월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18세 이전 혼인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랜은 '18+ 아동조혼 반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왔다. 조혼은 남녀 아동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짐바브웨에서의 조혼방지법안 통과로 인해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가장 내 경제적 부문에 참여할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케냐에 밝은 빛을 주는 태양광

태양광 산업 선두주자인 스카이파워(SkyPower)사는 플랜과 함께 태양광 발전 키트를 케냐의 극빈 지역의 가정, 학교, 병원 등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까지 케냐의 인구 중 단 23%만이 전기를 사용했으며, 특히 시골 지역의 전기 사용률은 전체 사용률 중 단 7%에 그쳤다. 플랜과 스카이파워사는 특히 지방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전기 시설을 공급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카이파워사의 대표이사 케리 아들러는 "우리의 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5년 동안 시행될 태양광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케냐의 약 2백만 가구에 빛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플랜과 함께 만드는 변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메트리입니다.
제 이름은 '친절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좋은 학생, 좋은 아들,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플랜의 후원으로 즐거운 변화가 생겼어요!

- 학교 도서관이 생겨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요.
- 마을과 학교에 식수 시설이 설치되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 마을에 보건소가 생겨 아프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 플랜코리아의 기존후원자시면 체크해주세요!

이름: (한글) (영문) □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e-mail:

□ 해외아동정기후원

저는 _____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국가 □ 선호사항없음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성별 □ 선호사항없음 □ 남자어린이 □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 한국어 □ 영어

□ 1만원 특별정기후원

깨끗한 식수선물
깨끗한 물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9명 중의 한 명, 6억 6천 3백만 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선물해주세요!

후원금결제방법

□ 자동이체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후에 연락을 드려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 등록 및 소식 제공,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플랜코리아 카카오톡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 02.790.5436 ✉ kno@plankorea.or.kr 🌐 www.plankorea.or.kr

The 좋은가게 Must Have Item!

1
ITEM



트래블 네임택

여행의 필수아이템,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필수품!
네임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포켓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블루, 그린, 와인, 브라운



~~12,000원~~ 9,000원

2
ITEM



플랜 카드포켓 목걸이

목에도 걸고 줄을 분리하여 지갑형태로 소지하기도
좋은 멀티형 카드지갑 목걸이입니다.
색상: 라이트브라운, 다크브라운
소재: 자연친화적인 베지터블 소가죽으로,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긴 시간 동안 가공한 고급 가죽입니다.



~~21,000원~~ 18,000원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The 좋은가게에서 구매해보세요.



세계지도



한복카드



한복스티커



생일카드



꽃말엽서

The 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8



후원문의 02.790.5436

www.plankorea.or.kr